

투데이 칼럼

“노점홍 부군수님 그간 고생 많았소”

그 동안 부안군 행정조직을 내
부에서 이끌어 오면서 탁월
한 업무 능력을 발휘한 노점
홍 전 부군수님 “그간 고생 많았
소”

활발한 성격과 지상 함을 동시에
겸비해 전 공무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아온 노 부군수
를 접한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여
성의 온화함과 따뜻한 가슴으로 타
인을 배려하는 부군수’, ‘항상 직원
들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이는 부군수’로 입을 모아 분명 과
워 넘치는 카리스마와 미래지향적
인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임에 틀림
없다.

부안발전을 생각하는 정신으로
가득 찬 말 그대로 부안사람이었
다. 비록 부안에서 태어나지는 않
았지만 노 부군수를 부안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군민은 없을 것이
다.

부안군 공직사회의 엄마 같은 존
재로써 항상 챙겨주고 꾸중보다는
칭찬을 같이 풀어서 위로와 격려,
꼼꼼한 업무로 공무원들의 조용한
변화를 이끌어 부안발전에 걸인차
구실을 해 왔다.

취임하자마자 노점 홍 전 부군수



이옥수
지방부 부안주재 국장

는 자치행정과 등 부안군 여직원들
이 가장 처음 저녁식사 자리를 마
련해 취임 초부터 가족 같은 분위
기를 연출. 따뜻한 인품을 직원들의
사랑을 독차지 진지한 감동을 받았
다.

행 인면 직원들과 저녁식사 회식
자리에서 허심탄화하고 진솔한 대
화로 즐거움을 선사, 다음날 직원들
이 감사의 문자메시지 받았고 반
마실 아한 구경 등 조성 위한 야간
현장답사 분인이 가장 먼저 나서
직원들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취
임 1주년과 생일 등 각종 기념일에
꽃바구니나 케이크 선물을 직원들
로부터 인기가 쏠렸다.

옛말에 ‘발탁비승(拔宅飛升)’이
있다. 집안의 한 사람이 출세해온
집안 사람이 덕을 본다’는 뜻이다.

변화를 이끌어가는 부안군을 나타
내는 말 같기도 했다.

사회는 물고기 한 마리가 물을 흐
려 여럿에 피해를 주는 ‘일어탁수
(一魚濁水)’한 일도, 발탁비승한
일도 다반사다.

그러나 일어탁수한 사회는 발탁비
승한 사회보다 부작용이 매우 클
것이다.바로 부안사람으로 증득된
노 부군수의 열정을 발휘했다.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군
설”을 위해 열정을 조금씩 채우는
의미있는 변화를 이루었다.

탄탄한 인맥과 행정경험은 부안군
의 주요 시책과 맞물려 실무적인
부분에서 70여 공무원의 어머니로
서 조직을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톡톡히 해 왔다고 본다.

취임하자마자 열악한 군 재정자

립도를 감안해 국·도비 확보에 집
중코자 관계부처와 전북도를 중형
무진 누벼 예년에 비해 많은 예산
을 확보하는 놀라운 능력도 발휘했
다.

공모사업 선정 횟수만도 노 부군
수 재임시절 20건의 공모사업에 선
정돼 총 1000여억 원의 예산을 확
보했다. 행정능력도 탁월해 지난해
중앙과 전북도에서 실시한 각종 평
가에서 부안군은 괄목할 만한 성과
를 올리기도 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매니
페스토 약속대상 및 민선 6기 전
국 기초자치단체 공약실천계획
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국가브
랜드 대상 3년 연속 수상(천년의
숨쉬, 부안참뽕), 제6회 지방자치
단체 e-마케팅 페어 대상, 지방재
정 균형집행 최우수, 2014년 국정
시책합동평가 우수기관, 2015년
정부 3.0 협업 우수사례 우수 등 2
년 동안 받은 수상만도 20여 회를
훌쩍 넘기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
다.

노점 홍 전 부군수님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 누구보다도 부안발전
에 소임을 다해 왔다는 평가를 받
아 존경합니다 “그간 고생 많았소”

독자제언

무더울수록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야

살인적인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
다.
연일 3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 속
에 불쾌지수가 급증하면서 짜증을 참
지 못하고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되
어 주먹다짐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차분한 여름나기가 요구되고 있
다.

요즘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면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강력범죄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불쾌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사소한 시비에도 폭
력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무더위만큼이나 높아진 불쾌지수로
사소한 시비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한순간의 실수로 후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평소에는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사소
한 일도 짜증과 함께 폭력적인 사태
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게 요즘 날씨
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짜증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더위로 인한 불쾌
감을 피할 수 없다면 시원한 곳에서
쉬며 안전을 취하는 것이 최상책이라
조언하고 있다.

폭력사건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만
큼 요즘처럼 불쾌지수가 높을 때에는
상호간 배려하는 마음과 관한 시비를
피하는 것이 좋다.

무더운 여름철은 서로가 힘든 시기
인 만큼 더울수록 서로 이해하고 양
보하는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방곡선 전주원산경찰서 남문지구대 경장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 288-9700

독자제언

가정내 폭행 · 폭언 절대로 있어서는 안돼

과거에는 가정내에서 부부지간,
부자지간, 형제지간등에 신체적 정
신적 피해를 당하는 폭력신고를 받
아도 가정사라는 이유를 들어 “가
정일이니 서로 대화해서 알아서 해
결하라”,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다”, “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서 가르
쳐야 한다”며 미온적으로 대처 했
다.

한 가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우울
증, 자살등을 유발시키는 가정폭력을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998년 7월1일부터 가정폭력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상습적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
여 가정폭력을 범한 경우나, 3년이나
가정폭력 범죄전력 2회 이상인 사람
이 다시 재범한 경우 또는 가족구성
원에게 심각한 폭력 위해를 가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가능

하며,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은 가해
자의 접근금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접
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
기간중에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게 폭행,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는 유치장, 구치소에 유치가 가능하
다.

피해자 지원안내 기관으로는 여성긴
급전화(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대한법률구조공단(132)등
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제 한 가정의 안정과 가족구성원
간에 건강한 인권보호가 보존하기 위
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전에 서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우
선시 해야 하겠으며 평상시 가정내
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폭행, 폭언
이 절대 있어서는 아니됨을 우리 스
스로 명심해야 한다.

장용길 전주원산경찰서 서신지구대 경위

사설

전북도, 현안사업 추진에 힘내야

도내 현안 사업들이 하세월이다.
그래서 또 다시 전북도에게 할 말
이 있다. 지역 발전 행보에 더욱
힘을 쏟아야겠다. 장기 표류한 채
로 지지부진한 현안 사업들 때문
에 도민들은 답답하다. 현안 사업
이라는 게 청사진 그리기만 활발
할 뿐, 성취를 목전에 둔 게 하나
도 없으니 말이다. 이래서는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전북도는
오래 터덕거리고 있는 현안 사업
들을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총 400여km 6개축 18개 사업
에 우선 주목해야겠다. 총 사업비
가 7조3천억 원인데 올 연말까지
집행될 투자액은 겨우 12.7%에 지
나지 않는다. 국비 지원이 그렇게
쪼끔거리는 식이어서는 어느 세
월에 완공이 될지 알 수가 없다.
언젠가는 완공이 되겠지만 그제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고 무한정
길게 끄는 것이 돼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발전이 결코 아니다. 본보
는 예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
문한 것이 있다. 오늘날 전북도
관계자들은 도민이 기대한 만큼
부응해 일해줬는지 자문해야 한
다.

최근에 무주와 김천을 잇는 동
서철도망 건설이 관심사로 떠오
르고 있다. 그런데 그게 믿음

가지 않는다. 무주와 김천을 잇는
동서철도망이 있어야한다고 말한
역사가 오래일에도 변한 것은 아
무 것도 없다. 동서철도망 건설은
새천년 이전부터 있어온 도민들
의 염원이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간
설이 새로운 지역 현안으로 떠오
르고 있는데 역시나 아직은 생각
단계일 뿐이다. 그러므로 다시 말
하거니와 무수 사업이든 구체적
추진이 중요하다. 정부의 투자 현
실이 청사진에 못 미친다면 고장
의 발전은 요원하다. 핵심 사업들
이 하릴없이 세월을 길게 끌고 있
는데 자꾸 그러면 지역의 발전은
백년하청이다.

도내 주요 현안사업들은 본래 정
부로부터 큰 공감대가 얻고 시작
한 것들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탄소산업 같이 주요한 현안마저
정부로부터 흠뻑 담고 있음은
유감이다. 도민들이 버리는 바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원
활한 추진이다. 요구하는 쪽과 요
구를 들어주는 쪽의 생각이 일치
할 수야 없다지만 현안이 마냥 현
안으로만 있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전북도는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내년도 예산 확보 행보에 더
욱 힘내야 한다는 당부이다.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사업 공금하다

전주시장은 얼마 전에 시청 브
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
부를 밝혔다. ‘가장 인간적인 도
시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그 기자회견
의 자리는 지난 2년 동안의 실
적을 말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목은 현안을 풀어내는 시기이자
핵심 가치인 사람과 생태와 문화
의 토대를 마련한 소중한 시간이
었다’고 자평했으니 말이다. 그
래서 전주시에 물어볼 말이 생겼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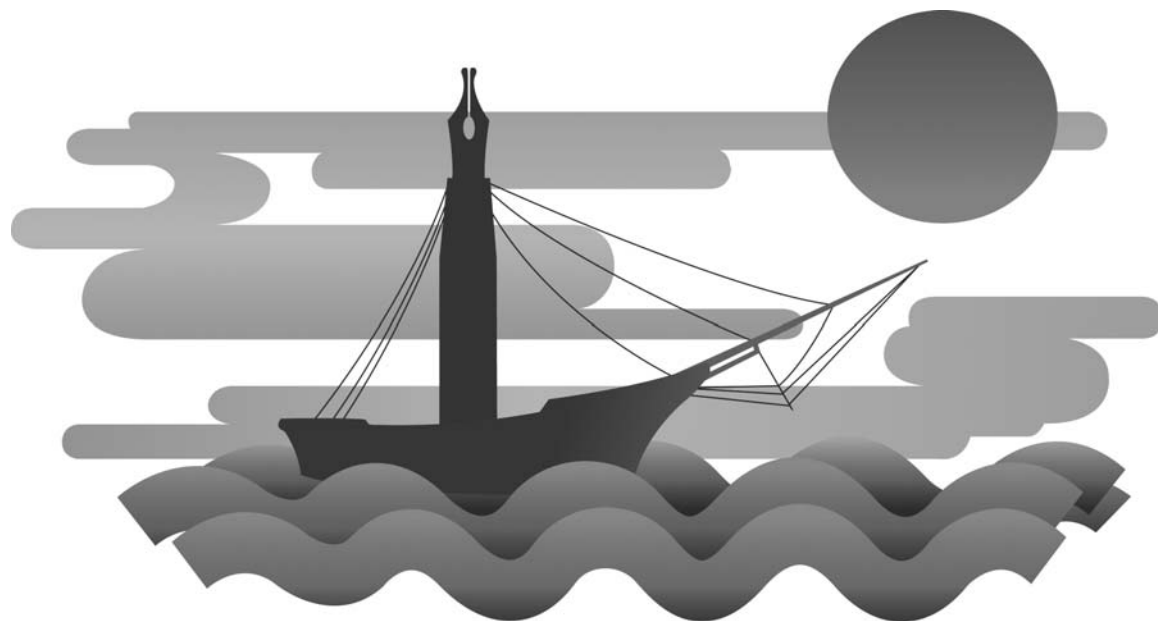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말이
나온지 여러 해가 묵었는데 오래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라서 말이
다. 약속을 했으면 평가를 보여주
어야 한다. 물론 전주 구도심에
변화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민원의 대상이었던 낡은 도청사를
허물고 말끔히 한 것이 평가의 대
상이기는 하다. 그런데 그게 그뿐
이다. 임시로 가설한 가림막이 오
래가고 있는 작금이니 말이다. 그
리고 그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 현
재로서 알 수가 없다. 짐작컨대

예산이 확보돼 공사가 시작될 때
까지 그것은 그대로일 공산이 크
다.

지금 풍터가 된 그 지리는 차량
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
다.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래 가선
안 된다. 전주시 측은 너무 채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할 지도 모
르겠다. 채근하는 이유는 분명하
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도시 재
생사업은 중요한 현안이다. 구도
심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
으면 속도를 내야 한다. 평가를
보여주겠다고 호기있게 말했으면
평가 포 나는 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주시는 “도시 공간 재창조”를
말했으니 도시 공간 재창조를 보
여주어야 한다. “가장 인간적인
플랜 5G를 추진하겠다”고 밝혔
으니 추진해야 한다. 구도심 활성화
이든 도시 공간 재창조이든 그 구
체적인 추진이 있어야겠다. 구도
심 재생사업이 한 때의 인기를 얻
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